

## 데스크 시각

김미은  
문화부장

## 축제의 계절, 광주는 우울하다

연주하고, 춤추며 한시도 쉬지 않는 에너지를 과시했다.

페스티벌을 더욱 빛낸 건 바로 관객들이었다. 무대 앞을 떠나지 않고 스탠딩 관람한 열렬 관객들은 물론이고, 잔디밭에 삼삼오오 모여 앉은 관객들까지 함께 어우러져 초가을 밤의 추억을 만들었다. 문화는 진정 즐기는 자의 것, 마음껏 발산하며 내지르는 축제 현장의 그들이 한없이 부리웠다.

## 인공기, 체계바라…

8월과 9월 광주는 온통 축제 물결이다. 세계아리랑축전, 점불성악축제 등 또 다른 축제도 대기 중이다. 한데, 흥겨운 축제로 넘실대는 광주가 꼭 즐거워보이지만은 않는

다. 언제부턴가 문화계에 우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게 아닌가 우려했는데 몇 가지 사건이 겹치면서 자꾸 확신이 들려한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벌어졌던 북한 인공기 사건은 너무 황당했다. 밸런은 22억 원을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작품이 행사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하면서 부터다. 시는 즉각 이를 재단과 예술감독에게 전했고, 재단 측은 작품을 철거했다는 논란이 일자 하루만에 다시 설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은 논할 가치도 없다. 내년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가 깊은 결정일지도 모르지만, 광주시의 일차원적 대

응은 볼상식하다. 논리없는 '색깔론'에 함께 박자를 맞춘 셈이니 난감하기 짹이 없다.

바로 며칠 전 북한 청소년들을 초청해 유니버시아드 관련 행사를 치르며 '남북화해'를 외치지 않았던가. 남북한이 함께 쓸 단일 기를 제작하는 컨셉인데, 인공기를 활용하는 건 가장 자연스러운 발상이 아닌가. 적극적인 설득의 과정이 있었는지도 궁금하다.

소년소녀합창단의 체계바라서 문제도 마찬가지다. 광주지방보훈청장이 문제 제기를 했다. 그래서 시 책임자가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고민도 없이, 중징계 운문한 것은 눈치 보기(정부·시장), 무소신, 과도한 염려증에서 기인한 게 아닐까.

두 사건은 광주시 문화정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 씁쓸하다. 입버릇처럼 말하는 예항,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민주·인권·평화 도시 이런 게 다 '구호'에 머무르고 있다는 자조감도 든다.

## 그릇된 시 문화정책의 현주소

얼마 전 광주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날아온 보도자료를 보고는 실소를 급할 수 없었다. 물론 국비와 시비 지원 없이 수년 동안 어렵게 행사를 꾸려온 주최측은 시의 지원을 받게 된 데 안도했을 것이다. 2014년을 도약의 해로 삼은 상황에서 내년 예산 문제도 고려됐을 터이다.

하지만 광주시 찬양이 담긴 보도자료는 어이가 없었다. 행여 자료가 서울의 영화전문잡지나 종양 일간지에도 뿐더러였을까 낮뜨거웠다. 영화제 개막식 행사에서도 시장의 '긴 인사말'을 통해 광주시가 부산을 제치고 수출 증가 1위, 일자리 창출 1위라는 자화자찬을 들어야 했다.

광주문화재단에서 받은 메일은 또 어딘가. 난데없이 세계수영선수권 서류위조 사건과 관련된 신문 칼럼이 담긴 메일을 받았다. 이 메일이 언론사에 전해졌는지, 재단 메일링 서비스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졌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문화'와 무관한 내용을 광주시체육회도 아니고, 대표 문화기관이 보내다니.. 할 말이 없었다.

요즘 걱정되는 건 이거다. 문화단체·기관·예술가들의 자승자박. 사업비를 대는 '관'에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관하는 것 말이다.

언제부턴가 각종 지원금이 투입된 공연이나 전시를 볼 때면 불편한 마음이 드 때가 많다.

본인들이 낸 세금을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지원받는 것임에도, 관에 심하게 휘둘리는 건 청자 스스로 죄책을 채우는 짓이다.

슬프게도 '색깔론' 등 광주를 둘러싼 분위기는 좀처럼 바뀌지 않을 것이다. 외부 시각에 대해 비난하고 성토하기 전에, 광주 스스로 떳떳한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과연, 우리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mekim@kwangju.co.kr

## 社說

## 정부, 대책도 없이 쌀 전면 수입할 건가

정부가 쌀의 전면 수입개방(관세화)

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쌀문제가 농정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쌀 경지면적

이 전국(173만㏊) 최대(30만9000㏊)

수준으로, 전면 개방시 직격탄을 맞게 될 '농도(農道) 전남'은 밭등의 불이 아

닐 수 없다. 또 관세화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FTA문제와 복잡하게

얽힐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비도 서

둘러야 할 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민주당 심재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쌀 관세화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이라고 밝혔다. 쌀을 전면 개방하는 게 비교우위에 있다는 판단이다.

허나 정부도 전면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말만 할 뿐 뚜렷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 당장 쌀농가 피해 보전과 식량자급률 확보 대책, 그리고 한·중 FTA에서의 쌀 관련 협상대책이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 내년 말 쌀관세화 유예기간 종료 시

점에 전면 개방으로 입장을 정하고, 여론몰이를 하는 게 아니라는 비난이 거센 이유가 여기에 있다.

쌀은 식량주권과 직결돼 있고, 농민의 생존권이 걸려 있어 전면 개방을 성급하게 결론내서는 안 된다. 쌀은 농업 소득의 40%에 달하고, 국민의 주식(主食)으로 사회·문화적 상징성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가구당 2700만 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 농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가 쌀수입 개방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농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종합대책을 세워도 늦지 않다.

전남도도 당장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전면 개방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정확한 쌀농가 피해액을 산출하고, 그 보전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한·중 FTA와 연계성을 면밀히 따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 전횡 일삼는 조선대 이사회 이대론 안된다

교육부가 차기 이사진 구성을 미루고 있는 조선대 이사회에 임시이사 파견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4일 공문을 통해 조선대 이사회가 지난 7월 회의에서 '결원이사를 뽑지 못하면 교육부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하겠다'고 의결한 점을 들어 '결원이사 1명을 보충하지 않을 경우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임시이사 선임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시이사 파견은 이사회가 결원이사 를 뽑지 못하면서 학내의 반발에 부딪히거나 먼저 제시했으며, 교육부가 이 내용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이사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대는 옛 경영진이 물려난 1987년 이후 22년 간의 임시이사 체제 끝에, 2009년 정이사가 선임됐지만 정원 9명 중 1명이 결원 상태이며, 나머지 8명의 의사 임기도 6개월 전에 만료됐다.

하지만 이사들이 모두 연임을 원하면서 차기 이사진 구성이 미뤄지고, 이사

들간 이해에 따른 파벌로 의사 조율이 안 돼 결원이사 선임도 난관하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오는 30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결원이사 1명을 선임하지 못하면 교육부가 최악의 경우 임기가 만료됐다는 점을 들어 결원이사를 포함한 9명을 임시이사로 파견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사회가 이렇게 자총수를 둔 데는 무엇보다 이사들의 도를 넘어서는 전횡에 있다. 오직 연임만을 위해 편법과 꼼수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이제 학교와 지역사회의 비판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며, 즉시 결원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또한 협직 총장과 총동창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도 임시이사 파견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이사들의 일탈행위를 중지시키고, 새 이사진 구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상식 이하의 이사회는 폐해만 끼칠 뿐이다.

## 無等鼓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트럼펫 소리가 울리고/ 우리가 단단한 바위 무덤 속에 누워있을 때/ 로비, 나는 자네에게 몸을 돌리며 속삭이겠네/ '로비, 우리 저 소리를 뜻들은 체하세'라고"

프랑스 파리 근교에 있는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 1854~1900)의 비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아일랜드의 천재 작가인 오스카는 동성애자로서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 부인과 두 아들을 둔 37세의 오스카는 열다섯 살 소년 알프레드 더글러스 경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 사랑은 오스카를 나락으로 이끌었다. 연인의 아버지인 퀸즈베리 후작에게 동성애를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선 오스카에게 배심원은 유죄를 평결했고, 재판장은 최고형을 선고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11일 전남도청에서 '한국통합의학포럼'이 출범한다. 포럼은 의사·한의사·대체의학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통합의학 현안을 논의하고 전남도 통합의료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었다. 의사인이 아니라는 취약점을 가지고 통합의학을 추진하는 데 여러 한계에 직면했었다. 이제는 의사인이 직접 나설 때이

다. 따라서, 법이 허락하는 최고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1897년, 2년간의 복역 끝에 석방된 오스카는 '동성애가 불법인' 영국을 떠나 프랑스로 건너갔다. 모든 것을 잊은 그는 남은 인생 3년을 프랑스에서 구걸하며 지내다 병들어 숨졌다. 오스카의 첫 동성 연인이다 그에게 동성애를 가르쳤으며 묘비명에도 등장한 '로비', 그

리고 한 때의 연인이었던 더글러스 경이 오스카의 마지막을 지켰다.

마지막 심판의 날, 절대자인 신의 부름도 못들은 체하며 연인을 향해 돌아눕는 오스카의 모습은 너무도 눈물겹다.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은 가혹한 세상도, 동성애를 자신의 가슴에

심어놓은 신의 섭리도 외면한 채 다만 자신의 사랑을 지키려는 몸짓이 애처롭기 그지없다.

김조광수 영화감독의 동성결혼이 화제다. 오스카와 로비처럼, 세상의 시선은 그들에게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서립고 행복한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작이다.

/홍행기 사회팀 redplane@kwangju.co.kr

## 기고

## 병원의 교통유발부담금

을 부과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7월 31일 의료기관은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 분담금 부과 대상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정부가 건강보험수가 등 가격을 통제하고 있고, 건강보험 당연 지정을 통해 전 국민에게 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성이 강한 업종이며 많은 거동 불편환자, 응급환자들이 이용하고 있어 지리적인 접근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이용 제한 시설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또한 각각의 자체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어느 정도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그 또한 쉽지 않다. 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 부제, 주차장 유휴화, 셔틀버스 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 승용차 함께 타기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중 교통량 감축에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 셔틀버스 운영은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어 곤란하다.

국토교통부는 지금의 건물 전체적인 크기

들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까지 떠나으면 경영악화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자체 조례로 부담금과 유발계수를 100%까지 인상할 수 있어 각 자체가 조례로 100% 씩 인상 적용할 경우 4배가량 인상된 금액을 부과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인상안까지 적용하게 되면 현행보다 최대 11배까지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

현재 법에 명시된 부담금의 면제 대상은 주차장, 창고, 마을 공동 시설물, 정당 소유 시설물, 종교시설, 학교시설(부속병원 제외), 도서관, 박물관, 보훈병원, 공장, 물류터미널,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으로 시설의 공익성을 인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병원의 공공성, 공익성에 대한 것은 사안마다 다르지 않고 보완타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온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온펜클럽' 회원들의 키를 실는 코너입니다.

## 한국통합의학포럼 출범에 거는 기대

통합의학이란 현대 서양의학의 장점과 효과와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한방 및 보완대체요법을 병행하여 진료하는 의료 서비스이다. 효과가 검증된 다양한 치료법을 사용하여 환자들을 치료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의료이다.

통합의학이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건강을 실현하는데 가장 부합하는 의료이다. 단순한 질병의 치료만이 아닌 환자의 신체·정신적인 부분까지도 배려하고 있다. 점에서 그렇다. 또한 통합의학은 우리나라 의료발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오랫동안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학이라는 독자적인 의료체계를 갖추어왔다. 양·한방이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면 우리나라를 넘어 해외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 지금까지 조성했던 토양에 씨앗을 뿌리고 수확하는 역할을 수행할 이는 의료인이다.

양·한방 의료인들은 갈등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 경시되어 있었던 보완대체 요법들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이러한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전남도 정부에서도 통합의학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11일 전남도청에서 '한국통합의학포럼'이 출범한다. 포럼은 의사·한의사·대체의학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통합의학 현안을 논의하고 전남도 통합의료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청립총회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활동할 한국통합의학포럼에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한다.

고 공부하는 게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자신만을 믿고 정자 의사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환자는 병원에 온 이상 담당 의사의 치료방법에 따라야 좋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소통 없이는 제 아무리 출중한 의사가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치료할지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신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병을 먼저 치료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 환자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의사의 말을 듣고 마음의 병부터 치료해 줄 때 좋은 치료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하나님밖에 없는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

고 공부하는 게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자신만을 믿고 정자 의사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환자는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 끊임없는 노력과 오너의 경영 철학이 접목된 우리 병원만의 색깔을 가질 때 환자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환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한 발 더 다가서며 소통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환자는 자신이 선택한 병원과 의사의 믿고 치료 방법에 협조할 때, 의사는 환자의 신체적 치료에 앞서 마음의 병부터 치료해 줄 때 좋은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의사